

大學의 개혁과 重點學科 육성방안

李 孝 秀

(嶺南大 經濟學科)

중점학과제도는 한국 대학사회에 밀려올 치열한 국내외적 競爭과 급속한 技術變化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能動的 戰略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몇몇 학과만을 중점 육성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 대학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非競爭 안일주의와 量的 확대주의의 실천적 청산을 위하여 自律的 競爭原理에 터한 대학의 自己改革과 體質改善을 주요 悞대로 삼고 있다.

1. 머리글

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는 『대학교육』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 글을 쓰지만, 여전히 사족을 달아야 할 정도로 내키지 않는 일이다. 그 이유는 이 글의 내용이 논문이나 시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기보다 한 대학의 改革 事例이고, 그 개혁작업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개혁작업을 개발·추진한 실무책임자였기에 객관적인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현재 그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다분히 정책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따라서 重點學科 제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분명히 일종의 사례 소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필자의 논의는 자연히 미화되

거나 주관적 판단에 치우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다분히 회고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대학교육』지가 희망하는 바대로, 이러한 事例가 우리나라 대학들이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는 데 조그마한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嶺南大學은 1992년 봄에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그것은 '실천력을 중시한 조용한 개혁작업'으로서, 첫째로 새로운 환경변화와 대학현상에 대한 바른 진단작업, 둘째로 대학운영의 철학적 기초정립과 대학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셋째로 대학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개발과 실시의 단계로 전개되었다.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大學의 環境 變化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위

기감과 높은 불확실성을 대학에 던져주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러한 환경변화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대학은 도태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환경변화의 내용은 치열한 경쟁시대의 도래와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본질적 전환, 대학입학 경쟁률의 급속한 하락, 대학의 자율권 확대, 대학 재정위기와 재정 규모 결정인자의 변화 등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현재 세계사의 흐름 자체가 냉전시대에서 경제전쟁의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이 국제경쟁에 전면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것은 치열한 競爭時代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쟁시대와 고임금경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산학협동체제의 실질적 구축과 산업계의 인력관리에 있어서 소수정예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말하자면 대학의 연구능력에 관계없이 형식적인 산학협동관계를 유지하거나 단순히 대학졸업장을 가진 자를 뽑는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새로운 국내의 환경변화 속에서 산업계는 대학에 단순히 수입학문이나 수입기술의 전수 수준이 아닌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양질의 우수한 대졸 노동력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量的 확대주의와 非競爭 안일주의를 극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율적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한 연구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대학운영의 철학적 기초로 삼았다.

그리고 大學의 秀越性 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의 기본방향을 내실화·과학화·국제화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학운영의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교학개혁·행정개혁·재정운용개혁 등 3대 改革作業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연구 및 교육 환경과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敎學改革을 추진하였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중점학과제도를 한국대학사에서 처음으로 개발·실시하고 이 제도에 입각하여

類似學科의 自發的 統合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大學財政 운용의 기본방향을 민주화·합리화·효율화에 두고 대학재정운용의 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교 이래 처음으로 예산편성지침서 마련, 단위 부서별 원가계산방법 확립, 예·결산 분석작업, 소모성 경비와 불요 경직성 경비의 절감운동, 연구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등을 실시하였다.

行政改革 작업으로는 직원의 전문화, 행정의 과학화, 업무의 효율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3대 개혁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계획은 방대하므로 여기서 모두 상론할 수 없고, 다만 3대 개혁작업 가운데 교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점학과제도만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重點學科 육성방안의 構想 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교육·사회봉사라고 하는 대학의 기본적 기능과 이들 기능의 상호작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大學의 體質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의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秀越性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학운영의 效率性 제고와 교육시스템의 柔軟性 제고가 강력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수월성·효율성·유연성을 동시에이고 통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중점학과제도를 구상하게 되었다.

즉, 우리가 중점학과제도를 구상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배경은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 추구의 절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들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대학문화의 본질적 특성인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립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대학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고 연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마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오직 입학성적, 그것도 극히 단순하고 암기 위주의 획일적인 학력고사 성적에 의해서 결정지어진 경직된 서열구조 속에 편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외압에 의한 大學의 劃一化와 序列化는 대학의 기본적 사명인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경쟁의 논리가 자리잡을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모든 대학에 '비경쟁 안일주의'와 '양적 확대주의'를 확산시켜 놓았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新세계질서에 의한 국제화·개방화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의 생존논리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즉, 새로운 환경변화는 良質의 우수한 대졸 노동력과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양적 확대주의와 비경쟁 안일주의에 젖어 있는 한국 대학에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주의와 비경쟁 안일주의를 청산하고 自律的 競爭原理를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하여 대학의 수월성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중점학과제도에 대한 또 하나의 구상배경은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대학의 수월성은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은 물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와 그것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개혁, 재정운용개혁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런데 대학에 있어서 재정투자의 효율성 문제는 교학개혁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우리는 重點學科 제도를 통하여 財政投資의 效率性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동안 예산제약과 투자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學科를 지나치게 細分化하여 왔다. 심지어 학과의 세분화가 곧 새로운 학문의 도입 내지 학문의 다양화로 착각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에서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大

型學科가 小型學科를 지원하는 방식의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 대형학과와 소형학과들을 동시에 부실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 모든 학과에 대한 균일한 지원방식은 재정상의 한계와 비경쟁 안일주의를 극복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나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특정학과를 특성화 학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특성화 정책 효과의 확산이 불가능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없어 비경쟁 안일주의를 극복할 수 없음은 물론 학과간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

따라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학과를 통합하고 학과 세분화를 예방하면서, 학과 세분화로 기대되는 교육효과를 동시에 충족시켜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중점학과제도를 구상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새로운 技術 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일반적 기초지식과 전문적 지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인식의 기초 위에서 이러한 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 중점학과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3. 育成 目的

우리가 중점학과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구상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월성·효율성·유연성을 동시적·통일적·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와 교육 면에서 전국적·국제적 수준의 학과를 육성하고 그 분위기를 대학의 모든 학과에 확산시킴으로써 研究의 卓越性과 敎育의 優秀性이 지배하는 대학을 창출하고자 한다.

둘째, 학과 내에 기초과정과 전공과정을 두고

전공과정에서 特性化 분야를 설정하도록 하여 유사학과 및 학문영역별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학과 세분화를 예방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학과 내에 기초과정과 전공과정을 두고 전공과정 내의 특성화 분야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학문영역의 廣域化·專門化로 새로운 학문을 신속히 도입하고,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넷째, 학과의 自律性 신장 및 義務性 향상으로 학과기능을 극대화한다.

다섯째, 위로부터 강제된 경쟁이 아닌 自律的 競爭體制의 도입을 통하여 양적 확대주의와 비경쟁 안일주의를 극복한다.

4. 指定 節次

일차적으로 중점학과 지정을 원하는 학과가 중점학과 지정 신청서류를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한다. 교무처는 접수된 중점학과 지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중점학과 선정전문위원회에 이관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중점학과 選定專門委員會는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 연구분야 등 평가에 있어서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을 해당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교원의 3개 대학 내지 5개 대학에 전문가 심사를 의뢰한다. 그리고 기타 항목들은 선정전문위원회에서 객관적 기준(중점학과 선정평가부)에 따라 직접 심사한다. 선정전문위원회는 종합점수가 일정점수(현재 80% 이상)를 상회하던 중점학과로 선정한다. 심사내용은 다시 기획위원회의 검토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고, 그 결과에 따라 총장이 중점학과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5. 選定 基準

중점학과 선정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계량적 기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一般的 基準에서는 학문과 기술발전의 요구가 국내 및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학과, 정부에서 중점육성하고자 하는 학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과, 학과간 통합이 가능한 학과, 학과의 세분화가 요구되거나 학과내 특성화분야 설정이 필요한 학과, 계량적 기준이 우수한 학과, 우수교원 및 우수 외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학과의 인가를 심사한다.

計量的 基準은 연구, 교육, 학생, 학과운영, 중점학과 운영계획 등의 부분을 세분하여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研究 부문(전문가 평가)은 최근 4년간 교원의 1인당 평균 연구실적 및 논문발표 실적과 대외연구비 수혜정도를 평가한다. 연구실적의 평가방법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국제수준의 학술지, 전국 규모 학회의 학술지, 기타 학술지 등으로 구분하며 저서는 전공서적, 대학 또는 중·고교 교과용 교재, 기타 저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논문발표실적은 전국 규모의 학회 또는 국제학술회의에서 1회 이상 실적이 있는가를 학회의 규모나 권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대외연구비 수혜정도는 동일계열 평균 대외연구비 수혜비율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教育 부문은 교육목표가 적정하고 실현성이 있으며, 교과과정은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전문가 평가), 강의시간은 요일별로 균형되게 편성되어 있는가, 주당 강의담당시수는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그리고 교원의 전공과 담당과목은 일치되어 있는가(전문가 평가), 강의계획서는 어느 정도 작성되어 있으며 실제강의와 그 내용이 적정하며 실현성이 있는가, 성적평가방법은 요소별로 다양하고 적절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성적정정 건수가 과다하지 않은가, 선택학생에 대하여 선수과목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學生 부문은 신입생 입학성적의 수준 및 그 분포,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및 유치활동 현황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취업률 및 취업자의 명부관리 여부를 평가하며, 그외에도 학생생활 상담 및 진로지도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영 및 성과, 학생 학술활동의 활성화,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평가한다.

學科 運營 부문은 학과의결기구의 설치와 효과적인 운영 여부, 민주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 예산의 연구 및 교육분야에의 우선배

정 등을 평가한다.

重點學科 運營計劃은 학과목표, 학과발전계획, 연구 및 학술활동 활성화방안, 대외연구비 확보방안, 교원승원계획, 조교확충 및 활용방안, 교과과정 개선방안, 특성화 분야 운영계획, 교수방법 개선방안, 선수과목 운영방안, 분반편성계획, 성적평가 개선방안, 우수학생 유치방안, 진로지도 개선방안, 졸업생 사후관리방안, 장학제도 운영 개선방안, 교육시설 개선방안, 예산운용 개선방안 등의 구체성·우수성·실현가능성을 등을 평가한다.

6. 育成 政策

중점학사로 지정된 학과는 다음과 같은 육성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학년당 정원이 60명을 상회할 경우, 상회한 정원 40명 단위로 특성화 분야를 1개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특성화 분야의 수에 따라 학과장, 부학과장, 사무요원을 두는 등 학과조직을 확대 조정하며, 특성화 분야에는 일반학과 전공과목 개설학점수의 20%를 추가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학과 60명 단위의 교원정원 외에 특성화 분야별로 3~4명의 교원을 충원할 수 있으며, 학과단위 조교 외에 특성화 분야별 조교를 둘 수 있다.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분반 과목과 규모를 학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최소 40명 단위로 분반교육이 가능하며, 졸업취직학점은 현행보다 10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자율조정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 분야별로 교비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며, 국고지원금은 교비예산 배정원칙에 따라 배분한다. 학과예산도 학과 등록금 수입액의 2~4%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하며, 학과는 이 예산으로 우수학생 유치 또는 강의조교제도의 도입 확대와 학과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7. 義務 및 指定 取消

1) 중점학과의 의무

중점학과는 연구와 교육의 질을 최소한 중점

학과 지정시점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실현가능한 학과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과장, 부학과장, 사무요원, 조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직무영역을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

강의조교와 연구조교를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우수대학원생을 확보하여 학부교육의 질과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강의조교는 중점학과에 추가 배정된 학과예산으로 임용되어야 하고, 연구조교는 원칙적으로 교원이 개별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나 권장되어야 한다.

교원은 강의담당시수를 최소화하고 강의조교제도를 활용하여 엄격한 수업관리 및 성적관리로 교육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교원의 강의부담 최소화와 전문화를 통한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기초공통과정은 대형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형강의과목은 교원의 강의시간 외에 4시간 이내의 연습시간을 편성하고, 연습시간은 강의조교가 지도하며 강의조교 1인은 학생 40명을 담당한다. 강의조교는 연습시간에 학생들에게 매주 과제물을 부과하여 지도하고, 그 결과를 학기단위로 학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점학과의 연구실적은 4년 단위로 교원 1인 기준 평균 자연계열 500%, 인문계열 4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연구실적은 개별단위기준이 아닌 학과단위로 측정한다.

선택학생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제도를 확립하여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선택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학과에 진로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전공 분야 선택, 사회진출 등을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2) 중점학과 지정 취소

중점학과는 지정 후 4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 연구와 교육의 질이 지정시점에 비하여 떨어지면 총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중점학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점학과 지정이 취소된 학과는 중점학과로 인하여 추가로 개설된 과목수를 50% 이내로 축

소하고, 기타 지원정책은 전면 중단된다. 중점 학과 지정이 취소된 학과는 스스로 노력하여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추가 개설과목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8. 類似學科의 自律的 統合

중점 학과제도도 학과를 세분화하지 않고 세분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학과 세분화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학과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즉, 학과가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학과간 장벽에 따른 연구 및 교육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사학과를 통합하려 할 경우, 위로부터 강제통합하려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로 그 실현성과 효과가 극히 제한된다.

첫째, 위로부터 일방적 통합을 할 경우 해당 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렵다.

둘째, 통합후 통합전 학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학과와 구분이 어렵고 그 결과 통합학과에 대한 지속적 지원책의 확립이 어렵다. 지속적 지원책이 확립되지 않으면 통합된 학과의 연구와 교육의 질적 계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학과통합 비용을 고려한다면 학과통합보다 학과 세분화 예방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단순한 통합정책으로는 학과 세분화를 예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학과 통합을 중점학과제도와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학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통합을 신청하도록 하는 이른바 自律的 統合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사학과를 통합한 학과는 4년간 한시적으로 통합에 따른 지원을 하고, 통합된 학과는 이 지원정책을 이용하여 4년 이내에 중점학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즉, 유사학과를 통합한 학과는 통합전 학과들의 예산 합계액 외에 그 학과 학생등록금 수입액의 4%를 4년간 지원받

고, 전공과목 개설학점수는 일반학과와 전공과목 개설학점수의 50% 범위 내에서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사학과 통합 후 4년 이내에 중점학과로 지정되면 지정시점부터 중점학과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영남대학은 '92년 6월에 중점학과 육성에 관한 규정이 통과된 후 동년 7월까지 11개 학과가 스스로 통합 신청을 하여 5개 학과(야간강좌개설부의 법학과 포함)로 자율적 통합을 이루었다.

9. 期待 效果

중점학과 육성방안은 우선 연구 및 교육의 질적 개선과 선의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되어 있어 중점학과의 競爭力 제고는 물론 대학교육의 秀越性이 추구될 수 있다.

둘째, 중점학과 선정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지정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자율적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모든 학과가 형평에 맞게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구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이라고 하는 중점학과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모든 학과에 최대한 확산시킬 수 있다.

셋째, 평가방법은 상대적 평가가 아닌 절대적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경쟁체제의 도입도 수월성 추구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의의 경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쟁체제의 도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좌절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유사학과 및 학문영역별 자율적 통합 유도와 학과 세분화 예방으로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조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중점학과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주요 부분을 학과 대협화 유도에 의하여 절감된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학과와의 희생없이 중점학과를 육성할 수 있다.

여섯째, 기초공통과정과 전공과정 내의 특성화 분야 육성으로 학과 전문영역의 광역화와 전문화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어 한편으로 새로운 학문분야의 도입과 다양화, 공동연구의 편의를제공

공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출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일곱째, 강의조교와 연구조교제도를 정착시키고 교원의 강의부담을 최소화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 학부교육의 질과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여덟째, 경쟁력 있는 학과의 육성으로 교외자금의 유입규모를 증대시켜 학교재정을 건실화할 수 있다.

아홉째, 학과평가인정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10. 政策 추진상의 留意點과 戰略

우리는 특히 중점학과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설계하였다.

첫째, 效率과 自力의 原則으로서 학과의 대형화와 재정운용의 과학화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중점학과 육성 재원으로 사용할으로써 일반 학과의 희생없이 중점학과를 육성한다.

둘째, 衡平의 原則으로서 모든 학과가 형평에 맞게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 제도의 도입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和平의 原則으로서 경쟁체제의 도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좌절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경쟁체제의 도입도 수월성 추구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선의의 경쟁으로 제한한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도도입을 3단계로 추진하도록 설계하였다.

제 1 단계에서는 중점학과 지원정책과 학과통합 지원책을 바탕으로 유사학과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한다. 제 2 단계에서는 유사학과를 통합한 학과들로부터 중점학과 지정신청을 받아 심

사 후 중점학과로 지정된 학과는 중점학과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학과로 지정한다. 제 3 단계에서는 실험학과에 대한 평가회를 매년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전면적 도입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이러한 制度的 改革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하나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특히 중점학과제도는 당시에는 생소한 제도였으므로 공감대 형성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래서 학장보회의,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협의회, 평의원회, 대학발전협의회, 설명을 요하는 단대 교수회 등에서 10여 차례의 회의와 설명회를 거치면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1. 맺음말

중점학과제도는 한국 대학사회에 밀려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기초로 이 변혁기를 오히려 명실상부한 세계의 대학으로 응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한 能動的 對應戰略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중점학과제도는 학과의 권한과 책임의 극대화를 바탕으로 연구, 교육, 학생, 학과운영 등 전 부문에 걸쳐 自己改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위로부터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자율적 경쟁원리에 터한 제도로서 그 파급효과가 대학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즉, 중점학과제도는 단순히 몇몇 학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한국 대학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비경쟁 안일주의와 양적 확대주의의 實踐의 청산 위에서 연구의 탁월성과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 냄으로써 대학의 참모습을 찾기 위한 大學의 體質 改善作業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중점학과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키게 되면, 현재와 같은 경직된 획일적 서열구조는 극복되고, 대학문화의 본질적 특성인 보편성과 특수성이 살아나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